

사라지는 대출상품... 은행권 “내년까지 취급관리 이어질 것”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속 은행, 비대면 상품 등 신규판매 중단 “연말 대출 문턱 더욱 올라갈 수도”

은행권이 비대면 신규 대출 취급 중단과 대출모집인 채널 종단을 선언하면서 ‘대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은행권 대출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9월 5조6029억원, 지난달 1조원대로 낮아지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여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솔(SOL)뱅크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대상은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전체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대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시민이 서울 시내에 한 빌딩 앞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제한 해제 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갈아타기 상품 등 비대면 주택금융 상품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일부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3개 상품(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

또한 은행권은 비대면 대출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채널까지 중단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8일부터 지역 농협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시행 기간은 별도 통지 전까지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모집인’ 취급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23일부터 대출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이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모집인이 가계 대출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해 취급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담대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주담대가 급증한 지난 7월과 8월은 각각 11조9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당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관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이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자 대출 취급 중단으로 관리 방안을 선회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문턱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의 기조가 일괄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지난 4일(현지시간) ‘2024 아시아보험산업대상’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상호 전략사업실장(왼쪽)이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 수상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 수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로 선정됐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2024 아시아보험산업대상(Asia Insurance Industry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Digital Insur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이번 수상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걸어온 혁신에 대한 평가”라면서 “국내 디지털 보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35기 고객패널’ 발표회

삼성화재는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35기 고객패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이 직접 주제를 선정했다. 체험 활동을 수행한 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20대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영(Young) 패널을 처음 도입했다. 30~40대 고객으로 구성된 일반패널과 10년 이상 활동한 고경력 패널로 이루어진 심층패널 3가지로 구성해 세대별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현대해상 ‘사랑나눔행사’ 개최

현대해상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본사 앞에서 ‘2024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랑나눔행사는 현대해상이 지난 2004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과 하이플레너가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임직원과 하이플레너가 기부한 7000여 점의 물품이 모였다. 신입사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일일 서포터즈로 나서고 캐리커처와 돌림판 등 물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했다. /김주형 기자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달러보험’ 이목집중

트럼프 당선에 달러가치 급상승 환차익 가능한 환테크 상품 부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1400원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달러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을 웃돌기세에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을 골자로 한 공약

은 경기 방어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연결돼 채권 금리를 높이고 달러 강세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에 따라 달러보험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달러로 거래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두가지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율로 계산해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특히 달러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점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테크’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AIA생명(이종우)은 지난 7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 지급된다. 연금 강화형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0년 후 일시납 보험료의 15%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8월 달러연금보험 2종을 선보였다. ‘오늘의 달러연금보험’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20년간 확정된 금리로 제공한다. 보험 가입시점부터 1년간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최대 연 1.5%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도 더해진다.

‘더 베스트 초이스(The Best Choice)’는 효창·이촌동, 성동구(0.16%→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4%→0.14%)는 서초·잠원동 재건축단지, 송파구(0.09%→0.06%)가 신천·가락동 대단지, 강남구(0.18%→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영등포구(0.10%→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33억원에 거래되면서, 4개월새

3000만원 올랐다. 반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리버뷰자이’는 10월 전용면적 59㎡가 1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16억5000만원) 대비 2000만원 내렸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연속 하락했다.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4으로 전주(100.6)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허윤홍 GS건설 대표 ‘BBP 챌린지’ 동참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사진)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BBP)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허대표는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계속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호반그룹 김대현 기획총괄사장,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안상미 기자 smah1@

서울 아파트 매매가 33주 연속 상승

부동산원 “전주대비 상승폭 축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33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광진구(0.06%→0.08%)가 광장·구의동, 중구(0.10%→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마포구(0.12%→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용산구(0.13%→0.11%)

는 효창·이촌동, 성동구(0.16%→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4%→0.14%)는 서초·잠원동 재건축단지, 송파구(0.09%→0.06%)가 신천·가락동 대단지, 강남구(0.18%→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영등포구(0.10%→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33억원에 거래되면서, 4개월새

/전지원 기자 jiw13@